

데스크시각



최재호 편집국부장 겸 경제부장

이러다 밥그릇 뒤엎을라

몰릴 수도 있다. 지난 2014년 12월 위크아웃을 졸업한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초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의해 매각 절차에 들어갔지만 더블스타와 매각이 불발되면서 브랜드 가치는 하락했다. 전 세계 자동차 수요 감소와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경영난에 처한 금호타이어는 매각 이슈로 인해 기존 거래선이 흔들리고 영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금호타이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조 측에 경영개선 절차 기간 중 임금 동결, 임금 체계 개선(통상임금 해소) 및 조정(삭감), 복리후생 항목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삭감과 정리 해고 등을 포함한 자구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사측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조3000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1년 유예하려면 노사 합의된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과 노조 측의 인식 차이는 크다.

생존 위한 골든타임 20여 일

사측은 좌불안석이다. 노사 합의가 없으면 극단적 국면을 맞을 수 있기에 노조가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노사 간 대화를 통해 자구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20여 일의 시간을 금호타이어의 생존 ‘골든타임’으로 여기고 있다. 반면 노조는 급한 모습이 아니다. 노조는 채권단

이 ‘설마 한 달 뒤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부도를 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노조가 주목해야 할 것은 타이어 업계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산 타이어 판매는 내수 정체와 수출 부진까지 겹쳐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에 타이어 수입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 국내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타이어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타이어의 내수와 수출을 합한 전체 판매량은 총 9313만 개로 집계됐다. 전년도보다 약 3.9% 감소한 수치로, 지난 2009년(8897만 개) 이후 가장 적다. 이처럼 타이어업 해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삭감과 정리 해고 등을 포함한 자구안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사측이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조3000억 원 규모의 차입금을 1년 유예하려면 노사 합의된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과 노조 측의 인식 차이는 크다.

실질 그동안 금호타이어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품질과 기술은 물론 노사 화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판매를 늘리고 이익을 창출해야하지만 매년 노사 갈등과 파업 등으로 경영 위기를 키워 왔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위크아웃 기간에도 자구안에 대한 노사 동의서를 부정하며 2011년, 2012년, 2014년 연속 파업을 했다. 또 위크아웃 졸업 직후인 2015년에는 39일간의 최장기 파업으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막대한 매출 손실과 함께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아직도 진행 중인 2016년 단체교섭은 1년 만에 마련된 잠정 합의안이 노조 내부의 갈등으로 부결된 채 벌써 2년 넘게 합

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유동성 고갈과 적자 누적으로 인한 발전 관리와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했지만 고통 분담과 협상보다는 반발의 대척점에 서있다.

하청업체 고충도 생각해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면 자신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나 이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국내외 협상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아니면 말고’ 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하며 몰아세우는 것은 ‘금기’다. 교착 상태에 빠진 쟁점이 있다면 여러 개로 분산해 타결을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계적인 협상 전문가인 미국 노스웨스턴대 리 톰슨 교수는 “성공적인 협상은 이기고 지는 승부의 게임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라 했다. 윈윈(win-win)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입장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대로 20여 일이 지나면 노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 재매각에 SK그룹과 더블스타가 거론되고 있다. 노조의 현재 투쟁 기조는 인수 움직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180여 개 하청 협력업체와 이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고충과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협마가 사람 잡고, 밥그릇 모두를 뒤엎을 수도 있다. /lion@kwangju.co.kr

社說

어제 출범한 민주평화당 그들의 앞날은

민주평화당(민평당)이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해 만드는 미래당, 그리고 통합에 반대해 새롭게 창당한 민평당 등 5당 체제로 재편되게 됐다.

민평당은 이날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4선의 조배숙 의원을 당 대표로, 3선의 장병완(광주 동구갑)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했다. 지방선거 상임선대위원장은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 사무총장에는 정인화(광양) 의원, 대변인엔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 등 초선 의원들이 전진배치됐다.

창당 발기인으로는 박지원·전정배·정동영 등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으며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을 비롯한 동고동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고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거의 동참했다.

이로써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계파와 호남 중진 의원들이 ‘반론

(재인) 정서’를 고리로 의기투합하면서 출범했던 국민의당은 완전히 두 조각으로 쪼개지게 됐다. 안 대표의 외연 확장과 중도 통합 선언 앞에서 두 세력의 공통 기반은 무너졌고 통합파(미래당)는 반대파를 ‘지역주의에 기댄 구태 정치’로 몰아붙였으며 반대파(민평당)는 통합론에 ‘배신자’의 딱지를 붙였다.

이들의 주장은 나름대로 양쪽 다 일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에 힘을 몰아준 이유만큼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념이나 당리당락을 떠나서 호남의 이익을 대변해 달라는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평당은 참여 인사의 면면만을 놓고 보면 순수 호남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지역 구도에 기대어 각자도생하려 하기보다는 앞으로 호남을 위해 확실히 무언가를 보여 주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앞날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아직도 수돗물 안 들어가는 곳 광역시 맞나

광주에 상수도가 처음 보급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오지 마을이 2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마을 주민들은 요즘처럼 한파가 기승을 부리더라도 하면 지하수마저 공공 얼어 이를 녹이거나 생수를 사먹는 등 또 다른 ‘수난’(水難)을 겪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17년 제1수원지 개설로 처음 수돗물이 공급된 이래 현재까지 광주시 전체 상수도 공급률은 99.82%에 이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마을이 광산구 15곳, 북구 9곳 등 모두 24개 마을이나 된다. 이들 지역 821세대, 1785명의 주민들은 지하수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다.

관선구 상정 마을의 경우 37가구 80여 명의 주민이 관정을 뚫어 끌어올린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이마저도 겨울이면 얼어붙고, 여름에는 가뭄 때문 에 못 쓰는 날이 많다고 한다. 더욱 우

려스러운 것은 집 앞마당에 설치한 개인 관정의 수질인데 지하수에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지난해 수질 검사 결과 상당수가 식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식수 전정’을 지르고 있는 주민들은 광주시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시는 상수도를 보급하더라도 수도관 인입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가구에는 수돗물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수돗물은 모든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초생활 인프라이자 최소한의 복지라는 점에서 예산 타령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죽기 전에 단 하루라도 물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는 주민들의 하소연을 새겨들어야 한다.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렵다면 예산 순위를 조정해 상수도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 수질이 불량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은편칼럼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한컴에 매료된 네팔 어린이들

스를 타러 가는 모습이 앙증맞게 예쁘고 안쓰럽기도 하다.

사립 학교에서는 비싼 학비를 받는 대신 통학버스 학생들을 실어 나르고 초등학교부터 영어만 쓰게 하며 엄격한 교육 관리 및 좋은 간식과 식사를 제공한다. 교내에서 내팔어를 썼다고 체벌을 하고 지나치게 영어를 강조하는 까닭에 오히려 내팔어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립 학교 학생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스마트 폰이 일반화되어 있다. 작년엔 직장 동료가 한 달 월급이라며 17만 원가량을 가지고 와서 중학생 딸의 스마트 폰을 한국에서 사다 달라고 부탁했다. 모두 스마트 폰을 가졌는데 자기 딸만 없었다.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정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가깝거나 멀거나 걸어 다닌다. 정부 학교는 모든 것이 무료이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의복도 지급된다. 그러나 교육 환경과 학습의 질이 사립학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은 시멘트 바닥에 얇고 허름한 카펫을 깔고 낮은 상에 여럿이 둘러앉아서 공부한다. 고학년 반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바다에 앉고 교사 만 의자에 앉아 가르치는 것을 본다. 학생들은 컴퓨터를 접한 적이 없고 사립학교

출신에 비해 영어는 물론 학과 성적이 뒤떨어진다. 중·고등 과정을 겨우 마치거나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고 이는 악순환, 가난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필자는 여가 시간에 수속 근처의 정부 초등학교에서 매주 한두 시간씩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작년 봄부터 노트북 컴퓨터로 한글과 파워포인트를 가르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NRF)에서 지원한 프로젝트로 한국에서 구입한 노트북 5대를 이 학교에 기증했다. 요즘은 한국어와 컴퓨터 수업이 있는 수준 있는 초등학교로 수료이 나고 교장 선생님은 신이 나서 수시로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10명인데 컴퓨터는 5대 뿐이니 두 사람씩 붙여 앉아서 컴퓨터를 쓰다가 30분이 지나면 자리를 바꾸게 한다. 한글과 영문, 글자 크기, 글자색, 색깔 등의 변환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림과 도형으로 넘어갔다. 남자 아이들은 소뿔자, 오토바이, 자동차 등을, 여자 아이들은 꽃, 인형 등을 옮겨 붙이며 그림을 키우고 즐기고 복사하고 도형에 색깔을 입히면서 즐거워한다. 남자애들은 수시로 내 눈을 피해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느 휴일이었다. 나는 그날이 공휴일인지 모르고 학교에 갔는데 내 학생들만 독서실에서 컴퓨터 연습 중이었다. 교장 선생님이 살짝 참문으로 넘겨다보고 사라지는 것이 교장과 학생들이 한통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이 끝나자 학생들이 노트북 컴퓨터를 교장실에 옮겨놓고 문닫속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열성에 감동받았다.

‘킴마야’는 5학년, 12살 여아인데 소아마비로 절뚝거리는 어린 동생을 학교에 데리고 와서 같은 교실에 두고 공부를 했다. 30분이 지나면 자리를 바꿔 앉으라고 해도 킴마야는 순순히 자리를 내놓지 않는다. 한 줄만 더 쓰면 된다거나 5분만 더 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때로는 들은 척도 안 한다. 그러면 짝꿍이 포기하고 책을 읽는다. 보다 못한 내가 개입하면 자리만 바꿔 앉고 마우스는 여전히 킴마야가 쥐고 있다. 내가 걸으려는 야단을 치지만 속으로 “이애는 근성이 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은근히 더 애정 이고 기대된다.

나는 이곳에 대학생들을 가르치러 왔지만 머리 굵은 부자들 자체보다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 정부 초등학교 학생들, 한겨울에도 맨발에 항상 콧물을 흘릴 거리는 어린 학생들이 더 눈에 들어온다.

기 고

디지털의 병증은 아날로그 처방으로



장수연 광주은행 수석부행장

디지털 시대의 표현 방식인 숫자에도 생명과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숫자에 인문학(Liberal Arts)적인 스토리와 감성을 섞지 않으면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가.

디지털 시대의 총아인 숫자(數)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겨울과 봄이 서로 맞닿아 있었고, 1월과 2월이 붙어 있었으며, 여가와 저기는 의식의 문제일 뿐 같은 공간에 존재했으며, 나와 너 또한 하나인 우리였다.

‘부존재(不存在)’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0’이 사물을 ‘있다’와 ‘없다’로 표현하게 하면서 컴퓨터가 ‘0’의 개념을 끌어들이게 된다. 연속성과 영원성의 아날로그 시대는 불연속성과 단절을 의미하는 디지털 시대에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것은 존재와 존재 사이의 틈을 봉쇄해버린다. 그로 인해 잃게 된 것은 바로 인간성과 자연스러움의 상실이었다.

LP(Long-Playing Record)가 CD로 전환되면서 음악에 있어서 소중한 자연스러움이 사라져버렸다. 그것이 ‘떨어져 나

간 조각’이다. 원래 소리는 아날로그다. 즉, 음파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어진 파장이다. 자연의 소리를 최대한 구현한 LP와 달리 전기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하고 재생하는 CD는 음을 조각내어 선(線)이 각(角)으로 해체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조각’ 즉, 자연스러움이 사라진다. 편리함과 대량 생산을 자연스러움과 바꾼 것이다. 공간감과 따뜻함과 자연스러움으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시대가 차가움과 부자연스러움의 디지털로 빠르게 대체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찾아 나설 때이다. 상극(相觸)은 서로 통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상극이면 디지털이 가져오는 많은 병폐와 사회적 질병을 아날로그로 치료할 수 있다. 인간성이 반영된 디지털 상품을 만들기 위해 아날로그적 가치를 찾아 나선 스티브 잡스, 그는 생각을 아날로그로 하되 표현은 디지털을 요구했다.

가격에 천착된 디지털 고객에게 아날로그적으로 스토리와 감성을 접목시키면 오랜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디지털 사회의 병증(病證)을 앓고 있는 고객에게 인간다운 감성을 바탕으로 한 아날로그적

처방은 분명 효과가 있다.

아날로그는 효과가 한방(韓方)이어서 느끼기 나타나지만 오래가고, 디지털적인 처방은 양방(洋方)이어서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오래가지 않고 부작용이 많다. 숫자는 숫자를 먹고 산다.

디지털로 분석된 고객은 지속적인 숫자적 우위를 요구한다. 원색(原色)은 디지털이지만 혼합색은 절리지 않는 아날로그이며, 음악의 독주는 디지털이지만 합주는 아날로그다. 윗위가 떨어져 나간 디지털 정보는 진정한 정보가 아니며 선후가 고려된 아날로그 정보가 진실이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디지털이라면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아날로그다. ‘겉다’나 ‘하얏다’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기계적이면서 디지털이라면 ‘거무튀튀하다’거나 ‘회고무래하다’가 인간적이며 아날로그적이다.

아날로그는 순간과 영원이 공존하지만 디지털은 순간의 연속인 영원만 남는다. 추억은 아날로그여서 지워지지 않으며, 잊었을 때는 디지털이지만 늘으면 아날로그를 찾게 되며 그래서 아날로그는 고향이다. 잃어버린 고향을 찾아,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떠나자.

無 等 鼓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적이 있다. 북한과 미국이 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 치의 양보도 없었던 데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당시 북한은 1993년 3월 국제 사회의 핵 사찰 수용에 반발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고 이듬해 6월 미국 수차례 경고에도 핵연료봉 추출을 강행했다. 미국은 당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무력 응징 카드를 만지작거렸고, 실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 3단계 작전 계획까지 상정됐다고 한다.

이에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응수하면서 한반도 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고,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과 대타협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는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 극한 대치를 이뤘던 한반도 긴장을 푼 것은 결국 외교를 통한 대화와 타협이었다.

23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가 또다시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한적 선제 타격을 흘리는 가운데

데 북한도 강경 일변도로 맞서면서 북핵 문제가 좀처럼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에는 세계 각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만큼 ‘올림픽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펼쳐지는 첫 정상급 다자 외교 무대인 데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북미 대화 성사 여부다. 북한에

서는 2인자인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미국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함에 따라 이들을 통해 북미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 참여와 남북 단일팀으로 오랜 만에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따라서 이번 ‘평창 올림픽 외교’를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일 정치부부장 cki@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 화매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 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문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